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20  
2016.0708

#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 커버스토리

수자타아카데미 초등학생들이 새 교복을 받았습니다.  
 동계스와리 아이들은 평소에는 옷이 없어서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지만,  
 교복을 받고 나면 깨끗하고 예쁜 교복을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02 놀면서 배우는 수자타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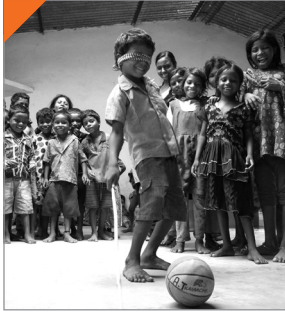


P11 알라원 학교에 새로 오신 넵 선생님



P17 사랑을 전하는 구미중 JTS 클럽

## Contents | 목차



###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계스와리(인도)**  
내일의 유치원을 만들어가는 프리스쿨 메이커 - 김윤미
- 07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뚜루라난 따 알라원에 선생님이 생겼어요 - 조혜림



### 국내소식

- 12 **함께 나누는 사랑**  
안산다문화센터 나비장터 스케치 - 임애림
- 15 **함께 하는 사람들**  
구미에 사랑을 뿌리다! - 이상명



### 활동터소식

- 18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23 **후원인의 소리**
- 24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6. 7. 29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넨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박종화, 김희선, 권지연, 김영숙,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김영순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놀이감을 준비하는 9학년 학생들



## 내일의 유치원을 만들어가는 프리스쿨 메이커

지난 학기를 끝으로 수자타아카데미 중등과정을 졸업하고 외부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16명의 9학년 학생들과 함께, 더 좋은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프리스쿨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년간 유치원 선생님이셨던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나고 재미있는 유치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김윤미 활동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바로 동네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직접 ‘더 좋은 유치원’을 만들어 가는 경험이란 얼마나 굉장한 기회인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부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16명의 9학년 학생들. 매일 반나절(3시간)씩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봉사를 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정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수자타아카데미는 이들에게 책과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9학년 학생들의 봉사 지도를 맡은 유치원팀 동료 반제이 씨가 이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물어 오길래 유치원의 이런저런 업무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반제이 씨와 함께 9학년 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라는 임무가 덜컥 떨어졌다. 이미 중학교 3년간 유치원에서 선생님이셨던 봉사해 온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유치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 일부 대안학교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을 이곳 동게스와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바로 동네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직접 ‘더 좋은 유치원’을 만들어 가는 경험이란 얼마나 굉장한 기회인가. 생각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몰려와 급기야 눈물이 고여 버렸다.

첫날, 조화가 끝나고 평소처럼 유치원으로 출근하려던 9학년생들은 뿌락뿌락 흠(강당)로 모이려는 말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말뚱말뚱한 눈을 나에게 집중한다. “어제까지 여러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프리스쿨 메이커(유치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좋은 유치원을 만들어 갈 거예요.”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팀을 나눠 ‘어떻게 좋은 유치원을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자유롭고 신나는 분위기예요.  
나의 함박웃음에 반제이 씨도 함께 웃었다.”

“놀이 수업이 필요해요.”, “드라이 푸드(아침으로 제공되는 빵튀기나 땅콩 등의 건조식품) 종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활동이 필요해요.”, “5세 반 아이들에게도 공책이 지급되면 숙제도 낼 수 있고 좋을 거 같아요.”, “교복을 1년에 2번 주면 어떨까요?”, “미술 교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등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는 가운데, 유치원 수업 구성이 힌디(인도어), 산수, 영어 등 지식을 배우는 시간만 있어 지루하니, 체육과 놀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나왔다.



프리스쿨 메이커 첫번째 발표 시간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놀이 수업을 만들기로 했다. 어떤 놀이를 할지, 놀이재료는 뭐가 좋을지, 놀이를 몇 가지나 준비하고 수업은 몇 시간을 할지, 누가 어느 유치원으로 갈지도 학생들 스스로 결정했다. 재활용 창고에서 종이상자를 가져다 터널을 만들고, 천을 찢어 안대도 만들었다. 잘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학생들은 걱정 놓으라는 듯,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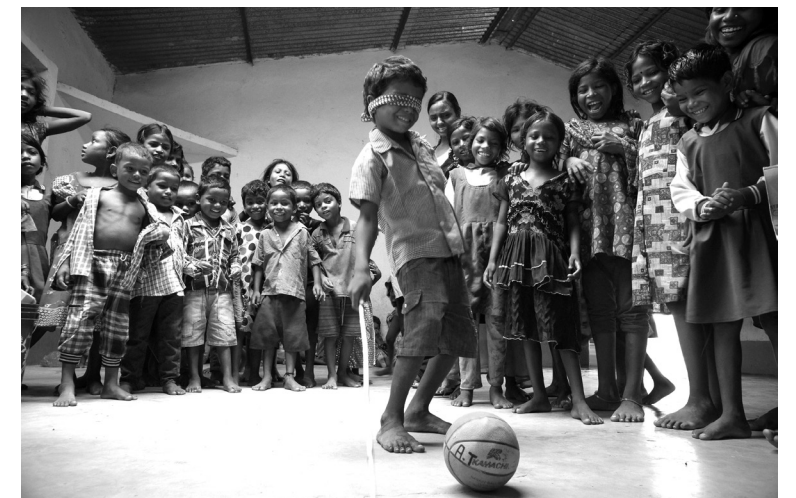
다음날, 직접 만든 상자와 안대를 챙겨서 각 유치원으로 흩어지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놀이 수업이 진행될 즈음이 되어서 반제이 씨와 함께 진행 상황을 살피러 나섰다.

그런데, 이럴 수가. 유치원 아이들이 차례대로 놀게 한다면 줄을 세우고, 떠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공을 들고 어쩔 줄 모르는 유치원생에게 던지라고 채근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얼어버렸고, 즐거워야 할 놀이시간은 훈련시간이 되어 버렸다. 다른 유치원에서는 3~4살 된 아이들을 둥글게 앉혀 놓고 수건돌리기를 하는데, 놀이 규칙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건이 와도 그냥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다행히 다음 유치원에서는 들어가기도 전에 아이들의 흥분 섞인 함성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공을 맞는 놀이를 할 때는 친구가 공을 맞힐 때마다 함께 탄성을 지르고, 종이상자 터널을 지나면서는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온전히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자유롭고 신나는 분위기예요.” 나의 함박웃음에 반제이 씨도 함께 웃었다.



눈 가리고 공을 치는 아이



친구가 거기가 아니야 좀 더 왼쪽으로



“나는 이들과 함께한 몇 번의 작업을 통해 ‘프리스쿨 메이커’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잠재력을 보았다.”

다음 날, 9학년 학생들과 함께 등글게 앉아, 어제의 놀이 수업이 어땠는지 물었다. 학생들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 본 수업이 어느 점에서 좋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만든 후, 다음 날 다시 유치원에 가서 시도해보기로 했다. 몇몇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었고, 다른 학생들도 오기는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니, 실망스러웠던 마음이 차츰 사그라지고 다시 안도감이 들었다.

지금껏 주어진 것만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쳐왔던 학생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벽한 수업안을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 공갈빵처럼 부풀었던 내 기대에 내가 고꾸라졌다. 등글게 앉아 자신들의 작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학생들은 진지했고, 나는 이들과 함께한 몇 번의 작업을 통해 ‘프리스쿨 메이커’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잠재력을 보았다. 이 학생들은 나보다 경험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이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유치원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9학년생들의 자전거 소리가 들린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그 소리에 나는 자동으로 반응한다. 오늘 유치원 수업은 어땠을까?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었을까? 오늘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내일의 자랑스러운 수자타 유치원이 만들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지금 실망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수자타 유치원을 보며 자랑스러워 할 그 학생들의 ‘내일’이 눈앞에 그려진다.

5년 만에 파견된 교사가 알라원에 도착한 첫 날



## 뚜루라난 따 알라원(Tultulanan Ta Alawon)에 선생님이 생겼어요

- 알라원 학교 교사 파견 이야기

2011년 이후로 선생님이 파견되지 않았던 알라원 학교, 학교를 정식으로 다시 열고 선생님을 파견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관계자 회의를 열고 서류를 준비해왔습니다. 마침내 2016년 6월 27일, 발령대기 교사가 파견되어 옴으로써 알라원 학교가 정식 학교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조혜림 활동가

알라원(Alawon)은 JTS 센터가 위치한 키탕글라드(Kitanglad) 산 해발 1,200m의 깊숙한 원시림에 있는 오지마을로, 좁은 산길을 지나 강과 계곡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알라원은 민다나오 섬의 자연보호구역 내에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마을로, 2005년 JTS의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 2006년에는 교실 3칸짜리 학교가 지어졌다. 이 학교에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5명의 교사가 파견되었으나, 실제로 운영된 기간은 1년이 채 못 된다. 그마저도 부족 학교(Tribal School)로 등록되어 임시교사만 파견되었고, 졸업해도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았다.

알라원 사업을 담당하고 나서 프레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알라원은 고산 지대라 커피 농사가 잘되는데, 수확한 커피가 업자들에게 헐값에 팔리는 바람에 주민들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 번은 JTS가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커피를 팔 수 있도록 중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커피를 센터로 가지고 온 사람 중에 프레니가 있었다. 주민들이 각자 가져온 커피의 무게를 재고 수령증에 서명을 받는데, 글자가 무섭다며 프레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프레니의 나이는 12살. 학교에 다녔다면 벌써 6학년이다. 두 번째로 커피를 가져와서도 울음을 터뜨렸고, 세 번째가 되어서야 겨우 간단한 표시로 서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서 빨리 알라원의 텅 빈 학교가 선생님과 아이들로 가득 차기를 바랐다.



글자가 무서웠던 프레니

학교의 개교는 일반적으로 교육청이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데, 알라원 학교는 두 곳 모두 의지가 없어서, 예외적으로 JTS가 개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작년부터 알라원 학교의 개교를 돕고 있는 실리폰 초등학교의 신디 로아(Cindy Roa) 교장 선생님과 회의의 시작으로, 리보나 군수와의 만남, 알라원 현장 방문 등을 천천히 진행해나갔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부지 기증문서(Deed Of Donation)였다. 알라원은 자연보호 구역이라 주민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곳이다. 리보나군 원주민 대표, 실리폰 바랑가이 캡틴(면장), 알라원 마을 리더, 그리고 다투(부족 공동체 지도자)와 함께 학교 개교를 위해 꼭 필요한 학교부지 기증문서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했고, 열띤 논의 끝에 알라원 사람들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991년보다 훨씬 이전인 200년 전부터 마을에 살아왔고, 필리핀 정부가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필리핀 자연자원국(DENR)을 방문해 설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



학교 개교를 위한 관련자들의 열띤 논의

그리고 올해 5월, 알라원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약 5개월 만의 한국인 활동가의 방문이라 마을 사람들이 크게 반겨주었다. 교사 숙소 보수는 거의 마무리 되어, 페인트칠, 미늘살 창 설치, 상수도 시설 설치만 남아있었다. 방문한 김에 일거리를 찾아 페인트칠을 돕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에 붓을 건네니 수줍어하며 칠을 하기 시작했다. 이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페인트를 칠해나갔다. 학교가 열리지 않는 이곳의 아이들에게 페인트칠은 미술 수업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어느새 1박 2일이 지나 떠날 시간이 되었다. 내 등 뒤에서 마을 사람들은 "Rico Rico Kawra(‘빨리 다시 또 오세요.’ 라는 뜻의 히가오논 부족 어)"라며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힘차게 흔들며 주었다. 알라원 사람들의 해맑고 따뜻한 웃음을 뒤로 한 채 마을을 내려왔다.

서류를 준비하던 중 길랑길랑 학교의 건축과 개교를 도왔던 치파이(Cheepay)씨의 소개로 부키드논주 원주민 교육담당관 에드윈 구리에(Edwin Gurra)씨를 만나게 되었다. 원주민 세계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는 바쁜 일정에도 우리 문제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다. 내가 준비해간 서류를 보고는 임시 학교가 아닌 정식 학교로 개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알라원을 함께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 보기로 했다.

알라원에 교육청 관계자가 방문한 건 처음이라,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설명을 들었다. 원주민 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이, 임시 학교가 아니라 예비 초등학교를 열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학교 이름 선정까지. 한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냈다.



페인트를 칠해보는 마을 아이

원주민 학교의 이름은 부족 고유 언어로 지어야 한다는 에드윈 씨의 권유로, 알라원 학교 이름은 ‘뚜두라난 따 알라원(Tultulanan Ta Alawon)’이라고 지었다. ‘알라원으로 가는 길’이란 뜻으로, 알라원의 교육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흥에 겨워 즉흥적으로 ‘뚜두라난 따 알라원’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셨다.

6월 13일, 방학이 끝나고 모든 필리핀 학교가 개학하는 날이 다가왔으나, 선생님은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주민 중 일부는 6월 말까지 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다른 학교에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생님이 구해지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라면 좋으련만, 개인의 능력 밖의 일이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

마침내 에드윈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리보나 군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임파속웅(Impasog-ong)군에 사는 20대 남자 선생님이 구해졌다고 했다. 게다가 알라원 주민들과 같은 언어를 쓰는 히가우논 족이란다. 정말 감사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전화기를 향해 연신 머리를 숙였다.

28일 새벽, 선생님이 드디어 알라원으로 올라갔다.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알라원 마을을 오가는 길에 무조건 마을 주민이 동행할 것을 제안했고, 마을 사람들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학교에 도착하니 아이들 몇몇이 난간에 앉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과 사진을 찍자는 말에 무척 수줍어하면서도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에 기쁨이 어려있었다. 교실에 다 같이 모여서 선생님이 히가우논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 학부모 조직에 관해 이야기하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다. 오래 있겠다는 교사의 말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일주일간 마을에서 살고 온 넵(Nep)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몇 시간 만에 내려왔냐는 나의 질문에 V를 그리며 2시간 걸렸다고 활짝 웃는다. “우와~그렇게나 빨리요? 이미 벌써 알라원 사람이네요.”라는 내 말에 씩스럽게 웃는 넵.

“지난 일주일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불편한 건 없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학교 지붕이 좀 새고, 교사 숙소의 지붕도 새요.”

“교사 숙소 어디요? 거실? 설마... 방?”

“제 방이요. 그런데 괜찮아요. 비가 많이 새면 그쪽을 피해서 자면 돼요.”

선생님은 오지에서 혼자 비 새는 집에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단다. 긍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에 항상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나를 돌아본다. 선생님이 마을에 다시 올라가는 월요일 아침, 알라원 사람들의 아지트로 쓰이는 구멍가게에 아이들 7~8명을 포함해 마을 사람들 15명이 선생님과 함께 마을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5년 만에 구해진 선생님이자, 10년 만에 파견된 첫 정식 교사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다.

아직도 학교 개교를 위한 서류는 마무리가 덜 되었다. 전화나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필리핀 사정상, 서류를 발급받거나 서명 하나만 받으려 해도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업무가 한국보다 몇 배는 더디다. 게다가 영어도 능통하지 않은 마당에 심지어 통합 원주민 회의(NCIP)에 제출해야 하는 비사야어로 된 문서까지 다뤄야 하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알라원 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힘이 난다. 남은 서류들도 파이팅!



선생님과 아이들의 첫 번째 만남





## 안산다문화센터 나비장터 스케치

함께하고 글쓴이 JTS안산다문화센터 - 임애림 활동가

2016년 7월 3일 일요일, JTS 안산다문화센터 주최로 많은 사람의 정성이 모여 안산 다문화 거리 한복판에 있는 안산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옆 광장에서 첫 번째 '나누고 비우는' 나비장터(벼룩시장)가 열렸습니다. 안산다문화센터의 홍보를 위해 나비장터를 센터 근처에서 진행되는 것도 고려되었으나, 더 많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문화 거리 한복판에 있는 안산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옆 광장에서 장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깝게는 안산, 광명부터 멀게는 일산, 파주, 김포까지 총 26명의 자원봉사자가 JTS 안산다문화센터의 첫 번째 나비장터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물품을 내려놓고 세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비장터는 주변 외국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물품 판매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중국, 대만, 홍콩,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 혹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나비장터의 첫 번째 손님이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온 한 40대 노동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향으로 돈을 부치기 때문에 일반 상점이나 대형 할인점 같은 곳에서는 값이 비싸 옷을 사기가 어렵다며, 나비장터에서 필요한 물건과 옷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잔터 씨는 퇴직금을 받아 3개월 동안 스리랑카로 돌아가 휴가를 즐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7살 된 아들을 위해 아동복 판매대에서 한참을 물건을 고르다가, 가방에 더 넣을 자리가 없다며 행복한 투정을 부렸습니다.



봉사하러 오신 분들은 언제나 그렇듯, 역할을 맡으면 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물품 판매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입어 보세요!”를 수도 없이 외치며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거리 곳곳에서 JTS와 나비장터 홍보를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JTS 안산다문화센터에서 앞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갈 나비장터의 방향과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의 웃음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에너지가 되어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봉사자들이 일상불란하게 움직여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밀려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 구미에 사랑을 뿌리다!

- 구미중학교 JTS클럽 이야기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중학생들이 하나둘씩 구미 2번 도로 농협 앞에 모여듭니다. 날씨가 덥든, 춥든, 비가 오든, 밝게 웃는 모습의 3학년, 조금은 낯설어하는 표정인 2학년 학생이 활동가와 선배들에게 꾸벅 인사를 합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로 시작하면, 그들의 힘차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구미 2번 도로 곳곳에 퍼집니다. “1,000원이면 2명의 아이가 밥을 먹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랑과 행복 전도사들의 목소리는 주변 상가의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흩씨를 뿌리는 구미중학교 JTS클럽을 소개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구미 지부 - 이상명 활동가

경상북도 구미, 구미중학교 JTS 클럽은 2015년에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입니다. 처음 만들 당시 3명이 의견을 모았고, 이후에 1명이 더 들어오면서 4명의 창립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3학년이 된 1기 회원들은 점심시간에 각 교실에 홍보 전단을 돌리고, 설명회를 열어 동아리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3학년 4명, 2학년 9명으로 총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정기 거리모금일입니다. 그들은 담당 선생님과 구미 지역의 JTS 활동가들과 함께 구미 2번 도로 농협 앞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거리모금 이후, 그 느낌을 나누어보았습니다.



**3학년 권오찬** : JTS 활동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봉사하고, 소통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도움되어 올해 학생회 선거 연설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학생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뿌듯한 점이 많았습니다.

**3학년 강경빈** : 2년째 활동을 하는데, 추운 겨울이나 한여름에 사람들이 건네준 따뜻한 마음과 응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주 외면하게 되었는데, 나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학년 김태민** : 오늘처럼 더운 날에도 잘 끝나서 기분 좋고, 반 년간 거리모금에 참여하면서 저 스스로가 성장한 것 같아서 보람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3학년 김근형** : 1년 동안 거리모금 활동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수고합니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가게 앞에서 하다 보면 자리를 옮겨 달라고 듣기도 했는데, 그럴 때 원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 층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봉사활동 동아리 부장을 하고 싶고, 이왕이면 JTS 동아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2학년 곽도현** : 처음엔 좀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 괜찮아졌고, 다음엔 모금함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김기민** : 저는 두 번째 거리모금인데, 처음 했을 때보다 창피함이 없고,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천 원씩 채워주실 때 참으로 기분 좋았습니다.

**2학년 김형준** : 사람들이 돈을 넣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학년 김동우** : 처음에는 “천원이면 두 명의 아이가 밥을 먹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감을 생겼고, 보람도 느낍니다.

**2학년 김두현** : 거리 모금을 하면서 다른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니,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동료애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 아이들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호응도 좋아서 보기 좋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박희선 JTS 담당** : 학생들이 매주 꾸준히 나와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모범을 보이며 모금에 참여하는데, 때로는 어른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선희 활동가** : 더운 날씨에 학생들이 안 나오고 싶을 건데... 너무 신동방통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니 좋고, 또 어린이들의 교육 차원에서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변 또래끼리 서로 관심을 보이며 함께 모금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장금림 활동가** : 학생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지나가는 학생들, 아이들이 1,000원씩 넣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진석 활동가** : 집에서 ‘나갈까? 말까?’ 요령을 피우려 하다가도, 학생들도 나오는데 나가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습니다. 속 편안하게 1시간 하면 너무 좋고, 학생들도 기말고사 끝나고 놀고 싶을 건데, 이렇게 나와주니 너무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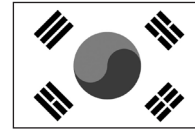
수고하신 구미중학교 JTS클럽 학생들, 그리고 구미지역 JTS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소중하고 큰마음이 주변으로 퍼져 나갈길 기원해봅니다.



#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Korea 국내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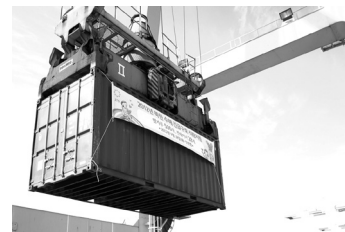
### 1. JTS 안산다문화센터 나비장터

7월 3일, JTS 안산다문화센터는 '나누고 비우는' 나비 장터를 안산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옆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나눔으로 물품이 마련되었고, 동남아 각국과 인도 등에서 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첫 번째 손님이 되었습니다. JTS 안산다문화센터는 이번 나비장터 진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나비장터를 열 예정입니다.



### 2. JTS 안산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사 워크숍

JTS 안산 다문화센터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언어 뿐만 아니라 '정'도 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국어 교사들이 모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함께 나누려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청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게임과 놀이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게임 규칙으로 소통이 제한된 불편 속에서,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고단함을 약간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 3. 대북지원 사업 지연 안내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2012년 인천항에서 북한 수해지역 긴급구호를 위한 밀가루 500톤을 실어 보낸 이후 JTS의 대북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TS는 대북지원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후원회원님들께서 대북지원 사업으로 지정하여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상황이 개선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4. 칠곡군 어린이집 나눔장터 수익금 JTS 후원

칠곡군 '소망 어린이집'과 '칠곡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뜻을 모아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직접 아기자기한 어린이 소품과 학용품 판매하는 가운데, 많은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소문을 듣고 나눔 장터를 찾아와 행사에 참여해주었습니다. 장터 수익금 전액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JTS에 기부해주셨습니다.



### 5. 네팔 조기복구 사업 진행중

JTS는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무너진 학교를 복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자낙푸르 구 라메초하프 현의 산간마을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의 건물을 복구하는 중이며, 학교 교실과 함께 남·여 화장실도 신축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 튼튼한 새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India 인도



### 1. 수자타 유치원을 만드는 '프리스쿨 메이커'

올해 고등학생이 된 16명과 함께 좋은 유치원을 만드는 '프리스쿨 메이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예체능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유치원생들이 지루한 암기식 공부에서 벗어나 더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생들도 직접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면서 함께 성장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수자타아카데미에 놀이터가 생긴대요.

개학 전 수자타아카데미는 뿌락뿌락 흙(강당) 옆 풀밭을 고르고, 그네와 미끄럼틀을 설치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는지, 개학 날 대문이 열리자 '우와~'하는 함성과 함께 아이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가방은 교실 앞에 대충 던지고 놀이터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앞으로 시소와 철봉도 들어올 것이고, 배드민턴장도 만들어 고학년을 위한 체육 활동 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완성까지 몇 달이 더 걸리겠지만, 놀이터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서울대공원 못지않은 '수자타 랜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3.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여름방학

한국보다 1주일 늦은 5월 21일은 인도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아침부터 38도를 넘는 뜨거운 날씨에, 많은 초대손님과 함께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맛있는 유미죽과 커다란 망고가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특별식으로 나가고, 저마다 크고 작은 선물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는 이날부터 5주간의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 4. 2016년 건강검진 사전교육

여름방학이 끝나면 수자타아카데미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검진에 대한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살렌드라 의사 선생님은 "1.건강한 몸이란 무엇인가? 2.우기철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3.비타민은 왜 먹어야 하는가?" 라는 세 가지 주제로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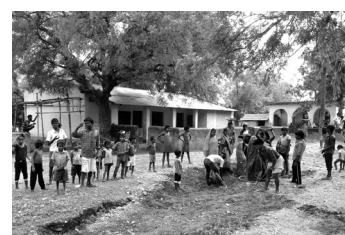
### 5. "우리 마을에 구급차가 왔습니다."

습하고 더운 우기에는 피부질환 환자가 많아집니다. 지바카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전용 구급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며 달려서 마을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깁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 3시간 정도 진료소가 생긴 셈입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3명의 스테프가 접수와 진료를 보고 약을 지어줍니다. 덩다고 아랫도리를 시원하게 벗은 코흘리개 꼬맹이도 진료하고 약을 지어줍니다.



### 6. 지붕 수리용 짚단 지원

JTS는 해마다 우기가 오기 전, 초가지붕 수리를 위한 짚단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덕분에 마을에 초가지집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지집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짚단지원 양을 늘려 가구당 500단씩 지원했습니다. 집 한 채의 지붕을 전부 갈 경우 대략 2,000단이 필요한데, 보통 일부만 수리해서 지냅니다. 극빈자 29가구를 방문해서 지붕 상태를 점검하고, 집 앞까지 짚단을 배달했습니다. 때갈 좋은 새 짚으로 지붕을 보수하니 보기가 좋습니다. 이들의 삶도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 7. 마을 흙길 정비 쉬람단(공동 노동)

스리람푸르 마을 유치원은 마을 중심길 바로 옆에 있는데, 이 흙길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 이번 우기엔 빗물이 유치원 마당으로 넘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물길을 새로 내는 작업을 요청하여, JTS가 식재료와 공구를 지원하고, 물길 내는 작업은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남자들은 수로를 파고, 여자들은 수로에서 나온 흙을 나르고, 아이들은 톱다가 놀다가 합니다. 시골벽적 일하는 모습에 더 좋은 유치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 8. 물이 나와서 정말 좋아요

'산티나가르'는 천민마을로, 돌산 아래에 있어 관정을 해도 물이 잘 나오지 않고, 가뭄이 심해지면 말라 버립니다. 몇 해 전, 정부에서 옆 평민 마을에 펌프를 설치하여 수도관을 연결해 주었지만, 언제부턴가 물이 나오지 않아 다시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으면서도, 주민 중 누구도 펌프실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JTS 스테프가 직접 펌프실을 확인하니, 마을로 가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평민 마을 청년들은 자기들도 물이 부족하다고 수리를 못 하게 하고, 산티나가르 사람들도 수리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카스트제가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나, 아직 천민들은 평민들에게 무엇 하나 요구하기 힘듭니다. JTS가 대신 수리를 하면 다시 망가뜨리거나, 평민 마을 몇몇이 산티나가르 주민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고 하기에, 회의 끝에 수동 펌프 관정을 두 군데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두 군데 모두 물이 충분히 나와서 마을 주민들이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했던 아이들이 씻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 Philippine 필리핀



### 1. 마룬독 유치원 보수공사

마룬독 유아원이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을 때부터 마을주민들의 열성이 대단했었는데 이번 보수공사에도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아원 담당 선생님부터 벽돌을 나르니 아이들도 덩달아 벽돌을 나릅니다. 위험하다고 말해보지만 괜찮다며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라마단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마치겠다던 약속대로 마룬독 유아원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 2. 바갈랑잇 학교 보수공사 예정

필리핀 JTS 센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바갈랑잇 마을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문구류를 지원하러 방문했을 때 결석생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곳인데요, 학교 외벽 곳곳이 파손되어 있고 천장도 없는 상태라 보수가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떨어진 외벽 여기저기에 대나무가 덧대져 있는 모습이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을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는 7월 12일 필리핀에 도착하는 대학생 정토희 선재수련팀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학교를 보수하여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3. 순조롭게 건축중인 수밀라오 특수학교

성남시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시작하게 된 수밀라오 군 장애인동 특수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는 한 달이 된 지금, 기둥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붕을 올리기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새로 취임한 수밀라오 군수를 비롯하여 교육부 담당자와 함께 수밀라오 특수학교 건축 과정과 추후 운영 과정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의 협력 속에 학교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 4. 시범 농장에서 자라는 옥수수

5월과 7월, 두 차례에 나눠서 0.7헥타르의 시범 농장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조림으로만 보는 노란 스위트 콘도 100평 정도만 심어 보았습니다. 이 스위트 콘은 색노랑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찌기만 해도 설탕보다 달니다. 시장가격도 높아서 개당 10페소(약 250원)입니다. 필리핀 현지인 활동가 미오 씨는 이번엔 성공하면 앞으로 많이 심어서 시장에 팔자고 합니다. 작물이 이곳 실리폰 기후에 맞으면, 종자를 많이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보급해 보고자 합니다.

##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보광, 뿌리양카, 정동표, 김유미, 박세환, 백은하
필리핀	안병주, 원석환, 송치현, 조혜림

## 후원인의 소리



어릴 적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수자타아카데미에 보내져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故 김남영 영가 -

홍성근 이선경이 평화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 홍진숙 -

함께 행복한 세상~~♡  
- 박원임 -

부처님오신날을 앞두니 JTS가 생각이 났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나 JTS 설립이념에 합당하게 잘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현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 문진영 -

2015년도 광주 금호초등학교 6학년 4반 친구들이 모금한 기부금입니다.  
- 김선호 -

하루속히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 엔진 튜브 태그 -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을 기념하며 이 작은 금액이나마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굶주림과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 정혜승 -

아들 우진이 어린이날 용돈입니다 ^^  
- 함보현 -

좋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 박준규 -

부천시 부명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술가정 시간에 만든 나무탁자를 선생님들 (오경진, 최선남, 김예순, 김수영, 이재현)께서 구매하신 금액을 기부합니다.  
- 부천시 부명중학교 3학년 -

지진으로 고통받는 일본과 에콰도르 국민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성재현 -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보험금 수령, 배고픈어린이에게 도움이 되길  
- 정라원 -

늦었지만, 사랑하는 딸 재윤이 대학입학 축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재윤이도 남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살기를..  
- 고귀영 -

제대하고 복학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 이인정 -

훌륭한 딸 경덕이의 생일을 기억하며, 내 생일을 기억하며..  
- 임명희 -

조카 라은이의 100일 기념 및 어려운 일이 잘 풀리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부합니다.  
- 이가솔 -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원철웅 -

이주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 이정인 -

안산 다문화센터의 도움에 고마운 마음으로 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 싶다  
- 베트남 부이티주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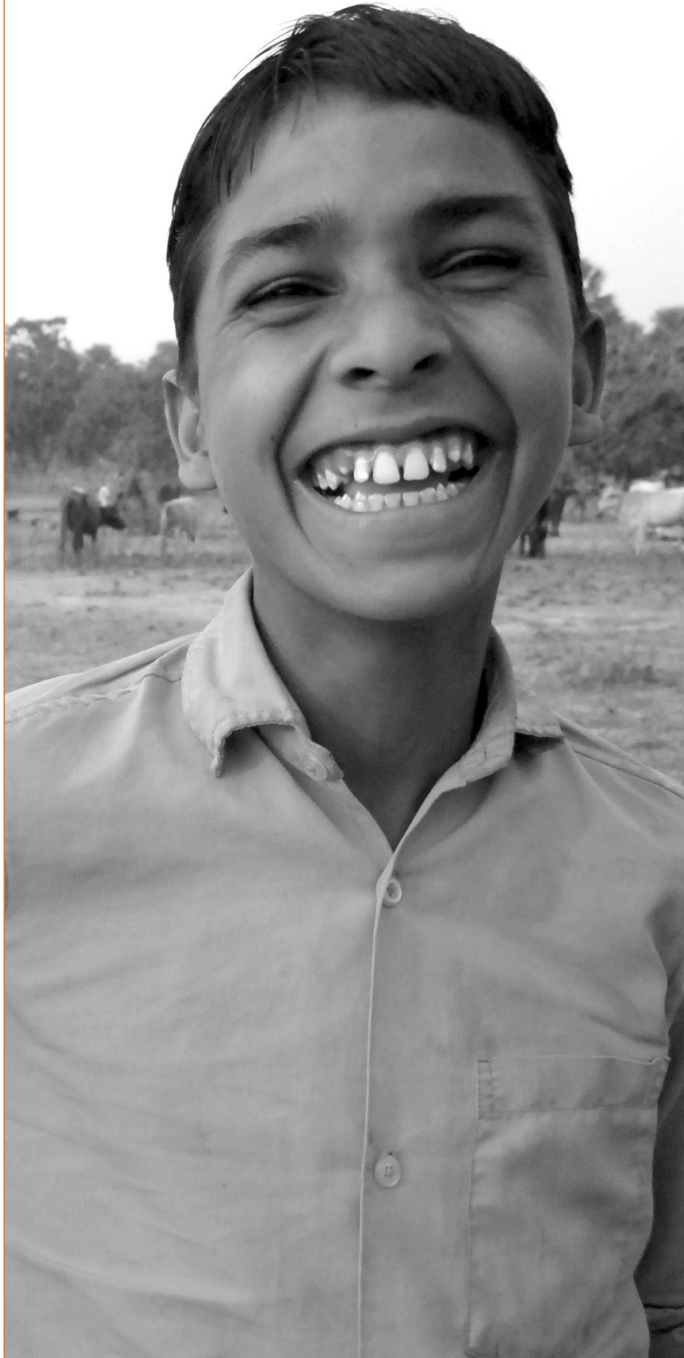


조수정 30,000	후원금 100,000	임명희 20,000	<b>필 리 핀</b>	김말숙 10,000	남미애 1,000,000	백승원 200,000	유경호 30,000	임명희 20,000	채희백 50,000
조연화 20,000	<b>2016년 6월 복 환</b>	임현순 30,000		김영호 25,000	노하진 10,000	백영아 45,000	유경희 30,000	임지현 100,000	최경자 50,000
조영신2972 44,050		한그루공방(김홍임) 50,000		김선호 20,000	노효준 50,000	백출27기 766,300	유동근 100,000	자비안 50,000	최경희 30,000
조영자 20,000		한성옥 100,000		김소연 10,000	김미경 60,000	변동해 10,000	유선희 20,000	정명진3249 20,000	최기원 1,000,000
준혁준서 546,000		허대영 10,000		김미현정 10,000	김미애0380 1,000,000	부이티주엔 50,000	유재호 10,000	장봉순특별후 10,000	최영자 580,850
차상연 30,000		고건우 30,000		명한석 50,000	김미옥 1,965 10,000,000	부천시부명중학교3학년 30,000	육정민3566 6,000	장세영 100,000	최인권 50,000
차지은 30,000		김경미 30,000		부천시부명중학교3학년 30,000	김미정 100,000	류수진 30,000	윤경미 30,000	장애송 10,000	최재현 10,000
최경자 100000		김문곤 30,000		신재영 10,000	김서원 300,000	무 10,000	윤경애 30,000	장윤정(6429)10,000	최정윤 30,000
최경희 31,000		김미영 200,000		신종섭 10,000	김성규 200,000	문보성 50,000	윤복남 41,000	장현련 10,000	최현주 20,000
최동녘 100000		김선호 50,000		신종섭 10,000	김소연 20,000	민목희 100,000	윤지수 50,000	전봉자 19,730	커브스단대오거리클럽 50,000
최명옥 50,000		김소연 10,000	이가솔 50,000	김수영 10,000	민인숙6885 16,500	윤지수 100,000	전혜진 50,000		
최순영 50,000	김예래 10,000	이남구 10,000	김수윤 10,000	박계만 10,000	윤지연 10,000	전화영 100,000	플러스4인방 7,700		
최순희 70,000	김윤정 100,000	이인정 30,000	김순열8110 17,300	박관자 10,000	이기슬 150,000	정경아 30,000	한동규 3,000		
최영택 30,000	김인숙 10,000	이진일 20,000	김연분 20,000	박규흠 10,000	이경향 30,000	정명덕 100,000	한성섭 200,000		
최원석 100,000	김정미 200,000	임명희 20,000	김연옥 30,000	박드레 66,850	이귀숙 20,000	정백기 100,000	한중호 20,000		
최점석 20,000	명한석 50,000	<b>JTS 전체사업</b>	김영란3867 14,000	박명호 100,000	이두연 100,000	정연길 100,000	한현자 31,280		
최정윤 50,000	문보성 50,000		김영선 100,000	박미혜 100,000	신동근 50,000	이등원4486 26050	정운점 134,000	황상모 100,000	
최주영 100,000	박완임 10,000		김영숙1397 49,000	박순양 20,000	신동근 100,000	이미향 10,000	정은중 30,000	황소영 150,000	
최현주 10,000	부천시부명중학교3학년 30,000		김영주 10,000	박영기 10,000	신동현 499,500	이소영 10,000	정은희 15,000	황영애 10,000	
탁경자 200,000	30,000		김운하 100,000	박옥경 400,000	신재영 10,000	이수빈 50,000	정인규 30,000		
하다영1099 250,000	신재영 20,000		김은영 120,000	박옥필 5,000,000	신종섭 10,000	이숙 20,000	정정원 1,000,000		
한양희 50,000	신종섭 20,000		김은희6441 54,750	박완임 10,000	신현승 200,000	이승연 20,000	정하연 100,000		
한영옥 100,000	안유빈 5,000		김인숙 18,500	박정자 5,000	안계현1820 16,280	이원형 10,000	정현옥 30,000		
한은숙.한성택 300,000	엄인용 150,000		김인영 100,000	박지현(윤승빈) 2,000,000	안병주 10,000	이인정 10,000	정희교 120,000		
한중호 20,000	오영준 5,000		김정남 100,000	박진욱 50,000	안산다문화센터 26,000	이재란 20,000	정희철 300,000		
한지민 10,000,000	우선영 10,000	김정미 50,000	박청 10,000	안송연 30,000	이정여 5,000	조갑순 1,000,000			
허환숙 100,000	이가솔 50,000	김정희 30,000	박태근 1,800,000	이정인뉴욕특 200,000	이정화 200,000	조귀선 20,000			
홍단희 20,000	이남구 10,000	김지식 50,000	박태화 1,000,000	안영민 20,000	이준우 50,000	조성규 30,000			
황병수 200,000	이두연 100,000	김지훈 10,000	박현주 109,120	안혜실 5,000	이한 10,000	조양순 100,000			
황상모 100,000	이요한 30,000	김창익 800,000	박화자 10,000	양진영0622 10,000	이현제 2,000,000	조영자 20,000			
황성식 10,000,000	이수용 100,000	김태균 800,000	박희달 30,000	엄인용 150,000	이해정 부천 23,100	조정숙 100,000			
황소영 50,000	이윤정 30,000	김광남2315 300,000	반미정 30,000	엄인자 100,000	이혜준 473,400	지은아 2,000,000			
황영애 10,000	이진일 30,000	김금옥 50,000	배문희 65,100	여승진 40,000	인도불교부흥 217,400	진주법당나눔장터			
황용구 1,000,000	이창재 50,000	김대광 20,000	김현정 10,000	여정민 100,000	5,000,000	차지은 33,000			
황진희9310 25,830	이향선 10,000	김도경 30,000	김현진 1,000,000	오윤경 10,000	인문교 50,000	창경초5-6 36,660			
	인문교 50,000	김동수 141,000	김형수 38,181	원철웅 60000					



# 해외JTS 후원금 (2016. 6. 01. ~ 2016. 6. 30.)

미 국 J T S	
2016년 6월	
강현희 \$1,000.00	이동영 \$400.00
고옥희(Benevity) \$212.00	이순희 \$1,000.00
권해원 \$50.00	이연순 \$100.00
김길남 \$500.00	이영국 \$118.00
김명 \$50.00	이영숙 \$50.00
김명 \$50.00	이정 \$100.00
김보옥 \$1,000.00	이정희 \$200.00
김세희 \$150.00	이주희 \$100.00
김순영 \$100.00	임선희 \$100.00
김윤진 \$200.00	정수길/홍희선 \$50.00
김은지 \$100.00	정수길/홍희선 \$50.00
김재원 \$400.00	정혜주 \$50.00
김학노 \$50.00	정혜주 \$50.00
김혜선 \$200.00	허윤주 \$1,000.00
김효명 \$20.00	황경옥 \$100.00
노유경 \$50.00	BCAJTS \$182.75
뉴욕정토(초파일) \$522.00	EUNHUI JONG
능인행 \$200.00	HUI YONG
무주상 \$5.00	RATLIFF \$30.00
문희경 \$50.00	Jean Lee \$300.00
박경배 \$120.00	KUNG O HONG
박상희 \$180.00	\$100.00
박승용 \$30.00	KYUNG J KIM
봉축행사 \$78.00	Lauren Carre
오종윤 \$100.00	\$100.00
워싱턴법당 거리모금 \$114.74	NJ GARAGE SALE
유승목 \$20.00	\$420.14
유정희 \$1,000.00	SOO JIN YOUNG
윤광미 \$500.00	\$114.74
윤호장 \$10,000.00	YOUNG S SUH
	\$50.00
	\$100.00



# 나눔저금통 현황 (2016. 5. 01. ~ 2016. 6.30.)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내인편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b>강동</b> 박종훈 394,120	양환복 29,160 이재현 92,230 장금림 16,000 26,960 최인숙 36,190
<b>강릉</b> 강릉법당 46,000 강릉법당 58,870 강릉법당 27,810	<b>권선</b> 권선법당 158,270
<b>강서</b> 강서법당 21,660 강서법당 5,470 강서법당 22,300 오재은 12,610	<b>기흥</b> 기흥법당 126,510
<b>강화</b> 강화법당 116,460	<b>김천</b> 김천법당 54,250
<b>거제</b> 거제법당 353,770	<b>김포</b> 김포법당 26,110 김포법당 47,120 김포법당 38,300 김포법당 42,000
<b>경기광주</b> 경기광주법당 158,700	<b>김해</b> 김해법당 338,210 김해법당 84,310 김해법당 84,720
<b>경산</b> 박복주 21,320 허태숙 42,970	<b>남산</b> 남산법당 76,000 남산법당 32,810 남산법당 39,000 남산법당 127,020 무명 25,000 무명 34,220 이수희70,000 이은여 4,400 이해성 19,510 조형주 1,630
<b>경주</b> 김선영 30,170 손인권 30,000 손채익 52,420 이연주 18,070 정은진 21,280 최경화 13,570 최말숙 43,100 황분옥 25,420	<b>남양주</b> 남양주법당 12,530
<b>고성</b> 고성법당 50,660 고성법당 23,240	<b>내서</b> 내서법당 61,620 내서법당 68,680 내서법당 83,900
<b>광명</b> 광명법당 25,570 광명법당 149,520	<b>노원</b> 노원법당 89,200 노원법당 9,220 노원법당 56,550 노원법당 50,100 노원법당 22,720
<b>광주</b> 광주법당 164,830 광주법당 306,570 광주법당 173,540	<b>대구</b> 광명주 22,250 구동주 45,420 김정란 66,270 무명 28,190 무명 40,750 무명 15,740 무명 29,610 무명25,020 무명 39,800 무명 215,820 박승분 22,710 백정숙 54,990 볼볼2개 51,350 신효선 18,400 왜관소망 어린이집 188,010 조정원 25,890 지산동나이스마트 15,640 지산동데레사소비센터2개 23,710 지산동ok포인트마트2개
<b>구리</b> 박현주 30,060	<b>대전</b> 대전법당 154,480 대전법당 56,600
<b>구미</b> 구미법당 123,620 김명애 19,960 양환복 28,710	<b>대전</b> 고주현 19,550 권재욱 19,890 김경민 21,150 김누리 25,800 김두레 16,760 김미나 20,110 김수정 3,780 김신영 36,370 김옥연 160,800 김재욱 7,600 도태숙 17,520 도태숙 10,230 동춘한의원 3개 393,650 무명3개 62,330 무명9개 131,030 석정호 15,940 성정원 25,460 송영주 41,000 송지훈 52,590 신성희 16,480 안효주 23,390 윤문자 13,440 왕옥선 25,100 유미숙 18,750 유인자 16,970 윤영희 18,340 이경남 10,510 이기자 20,570 이봉길 35,890 이신근 26,280 이은경 11,800 전난경2개 7,500 전연희 16,560 정중용 11,190 조수미 9,600 조정숙 23,020 조주호 28,100 한문희 26,190 한순규 9,310 홍소희 21,420 홍순녀 29,200 홍윤길 16,760
	<b>덕산</b> 덕산법당 39,870 덕산법당 156,400 덕산법당 178,440
	<b>덕양</b> 덕양법당 58,710 덕양법당 63,360
	<b>도봉</b> 김진숙 18,110 박성희 15,190 손정희 40,460 신승희 9,710 안재민 34,530 왕미숙 19,930 조경란 72,090 주희숙 19,130
	<b>동대문</b> 동대문법당 26,500
	<b>동래</b> 동래법당 599,730 동래법당 676,740
	<b>동작</b> 동작법당 21,350
	<b>마산</b> 마산법당 61,350 마산법당 32,040 마산법당 85,670

<b>마포</b>	이연 50,000 박지은 4,290 백은희 30,420 백주연 17,990 서초법당 65,720 유서영 40,630 유정용 88,250 이여희37,950 이영숙 55,480 이영자 21,950 이정은 16,990 장윤수 19,800 정지숙 17,400 조윤성 20,900 조지애 21,900 채효정 43,920 최병호 32,650 최영미 29,950 허성일 181,610 홍다연 42,000
<b>마포법당</b>	53,500 마포법당 23,560
<b>목포</b>	
목포법당	48,250 목포법당 58,080
<b>문경</b>	
김경화	32,510 장성희 28,100 정우화 19,350
<b>밀양</b>	
밀양법당	53,000 밀양법당 14,000 밀양법당 137,000
<b>방어</b>	
방어법당	289,130 방어법당 270,740
<b>부사</b>	
박예진 55,110 박중현 53,850 부사법당 162,380 이경순 41,350 이혜경 40,030 정미현 63,210	
<b>부안</b>	
유두희	22,010
<b>부천</b>	
부천법당	40,680 이혜정 30,150 이혜정 23,100 정미양 18,790 정용원 21,000
<b>분당</b>	
분당법당	185,910
<b>사천</b>	
사천법당	282,470
<b>사하</b>	
강순자 25,550 김보경 32,980 김보패 12,990 김사문 33,450 김은숙 25,130 박유민 36,480 사하법당 388,300 양수경 30,270 이창규 19,210 황옥선 26,120 황옥선 25,200	
<b>상주</b>	
상주법당	78,740
<b>서면</b>	
서면법당	214,190 서면법당 388,300
<b>서산</b>	
<b>서초</b>	
강경희 34,600 강민준 23,000 고귀영 25,140 구문희, 권형 25,570 구미경 37,040 국병호 12,230 권소희 26,570 김명옥 31,000 김민수 26,960 김성욱 29,860 김연희 18,300 김은경 23,890 김은기 33,490 김정은35,840 김현주 13,300 김형화 21,750 나이순 18,550 무명50개 1,660,850 박	

이연 50,000 박지은 4,290 백은희 30,420 백주연 17,990 서초법당 65,720 유서영 40,630 유정용 88,250 이여희37,950 이영숙 55,480 이영자 21,950 이정은 16,990 장윤수 19,800 정지숙 17,400 조윤성 20,900 조지애 21,900 채효정 43,920 최병호 32,650 최영미 29,950 허성일 181,610 홍다연 42,000

<b>서현</b>	
서현법당	117,420
<b>성서</b>	
성서법당	286,780 성서법당 105,550
<b>세종</b>	
세종법당 21,230 세종법당 22,210 세종법당 9,470	
<b>송도</b>	
송도법당 75,160 송도법당 224,470	

<b>승파</b>	
강기남 43,120 권미선 26,750 김수연 26,230 김응희 25,500 문라옥 28,290 윤애순 8,880 최수경 26,230	

<b>승현</b>	
승현법당 56,800 승현법당 45,530	

<b>수정</b>	
수정법당 136,260 수정법당 32,370	

<b>안동</b>	
안동법당 106,860	

<b>안산</b>	
민혜진 16,000 오은실 12,250 이경애 15,620 정유라 31,500	

<b>안산다문화센터</b>	
디사나야크 24,870 류현주 15,130 유한동 23,280	

<b>안양</b>	
구광숙 22,690 김명숙 13,670 무명 19,100 무명 19,560 무명 33,880 박형욱 32,400 서선영 35,950	

<b>양산</b>	
강홍욱 22,570 김유진 11,530 유영길 32,290 이복순 85,120	

<b>양평</b>	
양평법당 31,470	

<b>영주</b>	
김우출 24,200	

<b>영통</b>	
영통법당 107,510	

<b>옥교</b>	
권현숙 17,780 김명준 2,820 김민준 6,540 무명 40,630	

<b>왜관</b>	
복삼농협2개 33,310 이흥기 29,910 허혜 41,300	

<b>용인</b>	
용인법당 54,820 용인법당 174,760	

<b>울산</b>	
강진영 24,840 기철민 22,880 류호석 34,720 류호석 29,980 무명 17,650 박상욱 38,150 박행숙 9,020 백중원 22,540 심숙희 100,000 울산법당 196,370 윤정민 8,070 이승은 17,480 이정희 21,060 정용한 33,680 제갈은정 22,150 황재연 20,690	

<b>원주</b>	
김영희 23,410 김한숙 22,030 반창수 27,880 조연옥 19,330 한민자 40,920 홍성호 57,360	

<b>은평</b>	
박계숙 16,310 박숙희 22,500 영숙 29,820 이주영 14,430	

<b>의창</b>	
의창법당 63,890	

<b>인천</b>	
김기훈 35,900 신순옥 44,400 신현희 8,540 정정자 25,300 정정자 24,700	

<b>일산</b>	
일산법당 122,080 일산법당 143,300 일산법당 207,630	

<b>장유</b>	
김기원 33,270	

<b>정관</b>	
정관법당 127,570	

<b>정읍</b>	
정읍법당 120,790 정읍법당 21,410	

<b>제주</b>	
제주법당 26,480 제주법당 71,490	

<b>제천</b>	
제천법당 168,730	

<b>중랑</b>	
강헌주 99,150 무명 26,530	

<b>진해</b>	
진해법당 94,590 진해법당 43,770	

<b>창원</b>	
창원법당 99,170 창원법당 81,750	

<b>청주</b>	
청주법당 233,550	

<b>충주</b>	
충주법당 181,930	

<b>태전</b>	
태전법당 56,910 태전법당 20,440	

<b>통영</b>	
통영법당 28,060 통영법당 27,800	

<b>파주</b>	
파주법당 54,885	

<b>평택</b>	
김명옥 31,020 송지민 23,020 송지민 13,930 유익형 16,850 황선화 31,320	

<b>함안</b>	
함안법당 346,260 함안법당 71,780	

<b>해운대</b>	
해운대법당 353,040	

<b>화명</b>	
화명법당 57,000 화명법당 182,030	

<b>화봉</b>	
화봉법당 94,630	

<b>흥덕</b>	
흥덕법당 344,040 흥덕법당 61,000 흥덕법당 404,610	

<b>기타</b>	
강신원 126,630 권미선 25,000 권미선 25,000 김미옥 19,650 김순열 17,300 김은희 14,000 김은희 40,750 김춘화 42,270 민인숙 16,500 박드레 66,850 박보겸 16,200 박숙희 43,390 박현주 109,120 서호선 29,400 안계현 16,280 이경화 30,010 이동훈 69,930 이등원 15,540 이등원 20,510 이유허정 32,590 전봉자 19,730 조영신 44,050 지현진 54,800 창경초5-6 36,660 한승명살래 4,870 한현자 31,280 황진희 25,830 JTS 저금통 55,300	

<b>거리모금 현황</b>	
<b>(2016년 05월 01일 ~ 2016년 06월 30일)</b>	
강동 353,760 강릉 453,550 강서 581,560 강연제이 128,910 강화 340,250 거제 1,131,800 거창 297,200 경기광주 326,170 경산 1,018,510 광주 2,137,020 계룡 418,320 고성 244,000 관악 131,410 관평 240,600 광명 1,062,120 광주 1,169,370 구로369,210 구리 412,500 구미 2,119,160 군산 175,700 권선 430,950 기장 167,810 기흥470,300 길벗 8,911,533 김천 870,530 김포 495,510 김해 759,220 남산 1,557,103 남양주 389,170 내서 686,450 노원 158,000 노원 1,120,570 달성 177,080 당진 236,120 대구 5,464,240 대연 805,350 대전 2,942,846 덕산 1,054,110 덕양 297,240 도봉 422,540 동대문 312,950 동래 4,412,780 동작 121,390 동해 146,600 마산 1,520,730	

<b>마포</b>	299,110 목포 646,170 무주 221,170 문경 374,850 빽어 379,600 부사 388,000 부천 1,324,910 부평 792,440 분당 694,050 사천 678,050 사하 1,253,300 상주 464,000 서대문 363,680 서면 3,150,970 서산 510,770 서천 402,270 서초 4,040,420 서현 542,380 성남 537,660 성동 384,710 성북 340,510 성서 339,100 세종 853,190 송도 376,650 송파 854,720 송현 2,635,730 수원 443,520 수정 1,117,690 순천 532,380 시흥 117,000 신서 161,350 안동 892,120 안산 464,110 안산다문화센터 171,910 안성 117,700 안양1,086,840 양덕 1,341,260 양산 1,246,870 양천 346,220 양평 560,400 언양 247,970 여수 331,720 영등포 383,620 영주 678,210 영천 165,200 영통 903,160 옥교 560,650 왜관 404,680 용인 801,870 울산 1,238,940 원주 340,930 은평 112,460 음성 432,600 의정부 257,580 의창 202,600 익산 48,500 인천 435,320 일산 1,730,380 입재식모금인경지부 289,800 장수 237,200 장유 447,730 전주 268,700 정관 302,270 정읍 264,260 제주 824,150 제천 484,650 종로 133,500 중랑 283,780 중리 467,700 진주 2,052,070 진해 361,920 창원 2,316,820 처인 1,247,040 천안 1,405,120 청주 1,381,190 춘천 423,200 충주 383,650 태백 245,750 태진 935,900 통영 827,000 파주 391,560 평택 766,120 포항 479,100 함안 675,090 해운대 3,246,000 홍성 339,940 화명 842,510 화봉 586,950 흥덕 510,610 JTS거리모금 151,700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JTS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1. 후원사업 및 금액 후원을 원하시는 사업(금액)에 V 표시를 해주세요.

북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인도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필리핀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JTS 전체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2. 후원회원 인적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성명 (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	이메일
주소 ( 소식지 수령방법 :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의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 (인) ( 연락처 : )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대우리 부편 전체를 꼼꼼하고 반으로 접어 주세요.

신청서 제출 후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회원정보와 후원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출금계좌 CMS 출금이체에 대한 뜻밖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금주명 (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가 후원인 본인이거나, 예금주로 부터 출금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예금주 연락처 : )	
은행명	후원금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말일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4. 개인정보 수집 및 CMS 출금 동의 후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이용목적: 회원관리(기부금영수증 발급)통역금 인출 수신번호, 선별주민등록번호(핸드폰이 아닐경우),예금주명(예금주 생년월일)은행명,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이용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연방장사 간소화 서비스, 수신번호,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방장사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 *수탁업체 (사)한국제이티에스 위탁업무: CMS출금이체 승인 및 장사 재판번호, 예금주 명세, 주, 생년월일,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핸드폰,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출금(회) 제3자, 개인, 수탁업체 (사)한국제이티에스 위탁업무: 회원관리(온라인) 서비스,기부금영수증 발행, 계좌정보, 선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이체 인증,스,예금주명,예금주 생년월일,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탈퇴일 이후 5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후원금 출금이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목적: 기관, 국제, 재단목적, 연방장사 간소화 서비스, 재판번호, 선별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기부관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방장사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 JTS 후원계좌 안내

별첨 후원금 계좌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대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